

## 온평리 혼인지 '사랑의 성지'로 부각

데스크승인 2014.03.09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 혼인지 앞에서 삼신인과 삼공주가 혼례를 올리는 모습을 재현한 장면.

개국신화의 배경이 된 온평리는 '혼인지 마을'로 불리고 있다.

안내판만 있던 이곳은 1995년 옛 남제주군이 24억원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하고 전통 혼례관을 신축하며 기반을 닦아 놓았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는 목재 산책로와 잔디 조성, 나무 정비 등으로 지금은 자연생태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혼례관에선 실제 전통 혼례가 가능하고, 피로연장도 갖춰져 있다.

혼례를 모티브로 한 혼인지 연못 옆에는 고·양·부 삼신인이 신방을 차렸다고 하는 동굴인 '신방굴'

이 있는데 토기편 등 신석기유적이 발견된 바 있다. 세 공주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명이 생겨났다.

꽃으로 덮인 상자, 즉 화상(花箱)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한 바다는 '화생개'라 불리고 있다.

또 세 공주가 상륙할 당시 황금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면서 해안 이름이 '황루알'이라 불려졌다. 이곳은 혼인지축제의 출발점이 됐다.

이 외에 삼신인들이 공주들과 상견례를 한 곳은 '왕자의 석'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혼인지는 수량이 풍부하고 물이 마르지 않아 1970년대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 까지 마을 주민들과 가축의 음용수로 이용돼 왔었다.

(사진 혼인지 연못) 산심인과 삼공주가 혼례에 앞서 목욕재계를 했던 혼인지 전경.

(사진 혼인지 혼례 모습) 혼인지 앞에서 삼신인과 삼공주가 혼례를 올리는 모습을 재현한 장면.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